

남구, 백운상점가·무등시장 '경영 지원사업' 추진

중기부 사업선정...9000만원 투입 공동마케팅·매니저 채용 등 지원

광주 남구가 관내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와 무등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남구는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해 국비와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마케팅과 매니저 채용, 상인 교육 등을

지원, 시장경영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와 무등시장에 각각 45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투입해 상인회를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지역에서는 점포 10곳을 대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세 페이지와 블로그 리뷰 업로드 기능을 갖춘 마케팅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며, 홍보용 쇼츠 영상도 제작된다.

또 골목형 상점가의 행정업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장 매니저 사업도 선보인다.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입주상가와 백양로 주변 상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주인력 1명을 채용, 오는 3월부터 열리는 토요 야시장의 홍보와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무등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을 전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택배 접수대행 사업을 진행한다. 이곳 상인회에서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전통시장 내 거점 장소에 접수대행 코너와 배송 매니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무등시장 주변 초등학교 재학생 50~100명에게 쿠폰을 지급해 장보기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돌리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와 무등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과 배송 환경 구축 등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까지 높이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주민 생활권리 보장' 5대 시책 복구, 돌봄·교통·의료 분야 선정

광주 북구가 신년을 맞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역점 시책을 선보인다.

8일 북구는 돌봄, 교통, 의료 등 3개 권리보장 분야에서 주민 체감형 '5대 시책'을 신년 역점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선정된 지원과제는 기본 돌봄 분야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기본 교통 분야 '아이 맘 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 생활편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 제작', 기본 의료 분야에 '돌봄 영역 종사자 무료 독감 접종 지원'이다.

먼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돌봄 진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3월부터 광주 자치구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복구에 주소를 둔 남성 노동자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자로 자녀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 일환으로 부모를 대신한 돌봄 인력이 아픈 아이의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책임지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지역 맞춤형·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된다.

아울러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복구에 거주하는 영아(0~24개월) 동반 가정 2000가구에 업무 협력이 이뤄진 콜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맘 교통비 지원사업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북구는 이달부터 무장애 도시 조성 일환으로 교통약자 생활편의 로드맵 앱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서비스 제공 시점은 정보 수집 및 개발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돌봄 영역 종사자들의 기본 의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돌봄 기관 종사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10월부터 무료로 지원해 돌봄 시설 감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 완화 광산구,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광주 광산구가 올해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광산구는 주차장 신규 조성 민원 증가, 주거밀집 지역 주차 편의 확대 등 주민들의 편의와 상점가의 상업 활동 촉진을 위해 160개소 중 85개소의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CCTV 85개소의 단속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버스 단속 중복지역은 제외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완화했다"며 "단속하지 않는 시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서구, 평일 9시~6시 운영

광주 서구는 치매예방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는 서구 보건소 2층 진료실에서 매주 월~금요일(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치매 인지 선별검사(CIST) 및 치매환자 등록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구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활용하면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의 적성 검사와 치매 선별검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의심자는 본소로 진단검사를 의뢰해 정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치매안심센터 분소(062-350-41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아 기자



광주 서구는 치매예방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산구, 공모·대의 평가 '역대급' 성과

2024 한 해 공모 선정·수상 154건 사업비 421억원 확보...최대 규모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한 공모사업과 대의 평가에서 총 154건이 선정돼 421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공모 선정, 수상 등으로 광산구가 확보한 총사업비 421억원은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다.

공모사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관 '뉴·빌리지' 사업에 우산동이 선정돼 민선 8기 들어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국비 98억원(총사업비 19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

민지원사업에선 40년 숙원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사업 등 4건이 선정돼 4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40억원) △청년도전 지원사업(23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12억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2억5000만원) 등 올해만 78건의 공모 선정으로 412억원에 달하는 구정 동력을 마련했다.

또 광산구는 올해도 각종 대의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자치경쟁력지수(KLCI) 경영자원 부문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을 비롯해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에서 4개의 상을 휩쓸었다.

김상철 기자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 본격화 동구, 대상자 선정 위한 현장점검

광주 동구가 노후주택이 밀집한 산수동 자원 순환센터 일원에 추진 중인 '더 삶'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지원 사항은 △지붕, 방수, 창호, 단열, 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담장 재조성(1.2m 이하), 건물 및 담장 페인트 칠, 대문 교체 등 경관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이다.

집수리 지원사업 희망자 접수는 마감 결과 구역 내 대상 전체 가구 747가구 중 29%가량인 약 210가구가 접수해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동구는 서류접수 마감 후 노후도, 실 거주기간, 연령, 소득수준, 공공성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를 시행했으며 대상자의 1.5배 수인 74가구를 1차 선별한 상태다.

현재 1차 선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시급성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점검을 시행 중이다. 최종 대상자는 주거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입택 동구청장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많은 신청이 접수된 만큼 집수리가 시급한 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서구 '우리동네 일타강사' 학습자 모집

15~24일 강좌 운영

광주 서구는 주민주도 배움나눔 프로젝트 '우리동네 일타강사'의 올해 첫 학습자를 모집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주민주도 배움나눔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구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사업으로, '세상에 서 가장 큰 대학, 서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동네 일타강사'는 특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주민이 강사로 나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강사와 학습자가 모두 지역 주민으로 구성돼,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나눔의 문화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월 강좌는 '도전! 악필탈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관내 글씨공방을 운영하며 필체 교정의 노하우를 쌓아온 고수가 일타강사로 나서 4회 만에 악필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실

용적인 글씨 교정법을 배우는 동시에, 꽃과 소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한글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좌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의는 금호동에 위치한 글씨공방(운천로 31번길 20)에서 진행되며, 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서구 온라인 플랫폼인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손에 세컨드 서구'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팀(350-4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아 기자